

시론

AI 시대, 대학의 역할과 '지적 근육' 키우기



주 정 민  
전남대 대학원장

인공지능(AI)이 인간의 지적 노동을 대체하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대학의 존립 근거에 대한 의문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AI는 인간 교수보다 수만 배 방대한 지식을 찰나의 순간에 찾아내고 정리한다. 지식의 전달이라는 전통적 역할이 무색해진 지금, "대학이 더 이상 필요한가?"라는 극단적인 회의론이 고개를 드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귀결이다.

역사적으로 대학 무용론은 새로운 기술 혁명기마다 반복돼 왔다. 산업혁명기에는 신학이나 철학에 집착한 대학이 실물 경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고,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보급으로 온라인 교육이 확산될 때도 대학의 위기는 회자됐다. 최근에는 테슬라 창업자 일론머스크, 팔란티어 창업자 피터틸 같은 AI 주도 기업인들은 대학이 시대에 뒤처진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대학은 흔히 생각하듯 정체된 조직

만은 아니다. 지식의 전달을 넘어 '생각하는 법' 자체를 가르치는 대학들은 오히려 AI 시대에 그 가치가 더욱 빛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미국 메릴랜드주와 뉴멕시코주에 캠퍼스를 둔 세인트 존스 칼리지(St. John's College)다.

1696년에 설립돼 미국에서 세 번째로 오랜 역사를 가진 이 대학은 역설적이게도 가장 고전적인 방법으로 미래형 인재를 길러낸다. 1987년부터 전공과 교과서 없이 고전 100여 권을 읽고 토론하며 졸업하는 '그레이트 북스(Great Books)' 커리큘럼을 고수해오고 있다. 실용 학문이 득세하는 시대에 오로지 고전에만 몰입하는 이 대학의 행보는 시대착오적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결과는 놀랍다. 2025년 '유에스 뉴스 앤 월드 리포트'의 대학평가에서 '미국 최고의 학부 수업' 부문에서 11위(리버럴 아츠 부문)를 기록하며 그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입증했다.

세인트 존스의 졸업생들이 법조계, 의료계, 비즈니스, 예술 등 전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비결은 명확하다. 특정 기술은 유통기한이 짧지만, 비판적 사고와 논리적 분석,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시대가 변해도 변치 않는 핵심 역량이기 때문이다. 특히 질문의 질이 결과물의 질을 결정하는 AI 시대에 이들이 가진 '생각하는 힘'은 독보적인 경쟁력이 된다.

물론 모든 대학이 고전만 읽을 수는 없다. 그러나 기술의 속도가 인간의 적응력을 앞지르는 작금의 현실에서, 우리 대학들은 이들의 교육 철학을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 지식의 양으로 AI와 경쟁하려 할 것이 아니라, 특정 학과나 교과 과정에서만이라도 깊이 있는 독서와 치열한 토론을 강화해야 한다. AI가 답을 주는 시대일수록, 인간은 그 답의 가치를 판단하고 더 나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유의 힘을 길러야 한다. 그것이 바로 AI 시대에 대학이 존재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평가 방식 또한 엄격하다. 선택형 시험 대신 매 학기 튜터들과 마주 앉아 논리를 설명하는 구두시험을 치르며, 매년 2페이지 내외의 논문을 제출해야 한다. 특히 2학년 말에는 모든 튜터의 만장일치 찬성을 얻어야만 3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4년 동안 반복하며 학생들은 정보를 해체하고 재구성하며 자신만의 논리를 세우는 '지적 근육'을 단련한다.

세인트 존스의 졸업생들이 법조계, 의료계, 비즈니스, 예술 등 전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비결은 명확하다. 특정 기술은 유통기한이 짧지만, 비판적 사고와 논리적 분석,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시대가 변해도 변치 않는 핵심 역량이기 때문이다. 특히 질문의 질이 결과물의 질을 결정하는 AI 시대에 이들이 가진 '생각하는 힘'은 독보적인 경쟁력이 된다.

물론 모든 대학이 고전만 읽을 수는 없다. 그러나 기술의 속도가 인간의 적응력을 앞지르는 작금의 현실에서, 우리 대학들은 이들의 교육 철학을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 지식의 양으로 AI와 경쟁하려 할 것이 아니라, 특정 학과나 교과 과정에서만이라도 깊이 있는 독서와 치열한 토론을 강화해야 한다. AI가 답을 주는 시대일수록, 인간은 그 답의 가치를 판단하고 더 나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유의 힘을 길러야 한다. 그것이 바로 AI 시대에 대학이 존재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社說

유리천장 깬 광주 첫 여성 구청장 나올까 예의주시

6·3지방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광주·전남지역 경선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과 김영록 예비후보(전남지사 직 무정지·기호 순)의 박대치로 압축됐다. 본경선에서 과반 득표가 나오지 않자 다득표자끼리 결선투표를 치르는 것이다. 방식은 이전과 같은 국민참여경선(원리당원 50%+일반 여론조사 50%)으로 12·14일 진행한다. 두 후보는 정책 비전, 조직 기반, 지지세를 앞세워 불꽃튀는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광주 구청장은 현직의 승리로 귀결됐다. 동구는 임택, 서구 김이강, 남구 김병내, 광산구 박병규 후보가 무난하게 예선을 통과했다. 도전자들은 조직력과 인지도에서 현직 프리미엄을 넘어서지 못하고 모두 무릎을 꿇었다. 임택·김병내 후보는 3선, 김이강·박병규 후보는 재선을 노리고 있다. 눈길을 끄는 곳은 현 구청장의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북구다. 특히 다자 구도 속에서 본경선을 통해 신수정·정다은 후보(기호순)가 결선에서 맞붙게 됨으로써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마지막 투표는 8·10일 국민참여경선으로 이뤄지는데,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가히 신경전 양상이다. 신 후보는 "(정 후보의 토론회 요구)의 진정성에 의문이 든다. 민심과 당심을 가까이에서 소통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 반면, 정 후보는 "정책·도덕성 검증은 회피해서는 안 된다. 합종연횡으로 세 불리기에만 집착하는 구태정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시의원 간 대결이라는 점에서도 벌써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민주당의 텃밭으로 강세가 뚜렷한 만큼 광주 첫 여성 구청장 탄생에 예고해 더 흥미를 더한다.

민선시대 처음이라는 상징성이 크다. 전국적으로 다른 지역에서는 배출된 바 있지만 광주에서는 이번이 사상 최초의 타이틀을 갖는 셈이다. 역대 선거 때마다 할당제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을 바라는 요구도 많았으나 지방의회와는 다르게 여전히 적용되지 않고 있다. 견고한 유리천장을 깬 주인공이 나올지 지방선거의 관전포인트가 추가될 전망이다. 누가 공천장을 쥐든, 본선에서 승리하면 여성 구청장의 지위에 오른다.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천정부지 예식비로 더 주목받는 광주시 공공예식장

광주시청사 내 잔디광장, 1층 시민홀, 장미공원 등이 도심 속 예식 장소로 인기라고 한다. 내외부 공간을 활용해 '빛의 정원'이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실제로 지난해 총 8개 팀이 100~400명 규모의 결혼식을 진행했고, 올해도 예약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기존에는 업무 목적으로 쓰였지만 이제 '특별한 날'을 위한 곳으로 변신했다.

실외의 경우엔 1일 1만원, 실내엔 2시간 당 1만 원(냉·난방비 별도) 수준의 이용료에 구내식당의 간편 식사(국수 1인 5천원)로 피로연 비용까지 획기적으로 절감 가능하다. 아울러 야외 케이터링(뷔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꽃장식과 테이블 등의 소품도 직접 마련해서 색다르게 연출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은 6개월 전부터 접수 받는다.

수천만원에 달하는 막대한 지출로 인해 '웨딩플레이션(웨딩+인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다. 국가데이터처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월 기준 광주시 혼인 건수는 548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6.6% 증가했다. 공공예식이 합리적

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무엇보다 접근성이 높은 도심지에서 실용적으로 나만의 결혼식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게 강점이다. 시민들의 삶에 실질 도움이 되는 민생 시책으로 자리매김해야 하겠다.

공공의 자원은 모두 시민의 재산이다. 그 누구든 누릴 권리가 있다. 경제적 부담이 가능한 범위에서 충분히 활용하길 바란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예식비로 어려움을 겪는다면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 될 것이다. 광주시는 인재교육원 후생관과 무등산 생태탐방원 등도 개방하고 있으며,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5월부터는 전남도민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고물가 시대에 매우 적합하다. 하루에 한 팀으로 시간에도 쫓기지 않는다. 아름다운 신혼의 출발점이다. 개성을 추구하는 MZ세대의 욕구와도 잘 맞는다. 제법 훌륭한 전천후 식장으로, 어디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 벌써 핫플레이스로 입소문을 타는 중이다. 공공예식을 활성화해 예비부부의 고충을 경감해야 한다. 사회적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

기고

문화가 먼저 잇는 광주·전남



이 박 행  
(사)아가페컬처광주 상임이사  
글로벌문화관광타운 추진위원

광주와 전남의 행정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재정 배분과 권한 조정, 지역 간 정체성의 충돌은 쉽게 해소되지 않는다. 행정은 구조를 바꾸지만 사람의 마음까지 바꾸지는 못한다. 제도는 통합될 수 있어도 공동체는 저절로 하나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행정 통합 이전의 문화 통합'이다.

문화는 갈등을 넘어 사람을 잇는 힘을 지닌다.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자리에서도, 함께 보고 듣고 경험하는 문화는 자연스럽게 공감과 연대를 만들어낸다. 행정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문화는 가능하게 한다. 통합의 출발점은 제도가 아니라 경험이다.

이 점에서 '글로벌 문화관광타운 조성 T/F'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필자는 추진위원으로 참여하며 이 사업이 단순한 관광 개발이 아니라, 광주와 전남을 하나의 문화권으로 재구성하려는 전략임을 확인했다. 양림권은 근대 선교문화와 역사 자산을 중심으

로 한 순례형 문화벨트, ACC권은 국제 문화 예술과 인문 자원을 결합한 도시형 문화 거점, 무등산권은 생태와 치유 중심의 웰니스 공간, 남광주권은 의료·헬스케어와 연계된 체류형 산업관광으로 구성된다. 이 네 축은 서로 다른 기능을 지니면서도 하나의 순환 네트워크로 연결된다.

이는 관광의 개념 자체를 바꾸는 시도다. '점' 중심의 소비형 관광에서 '길' 중심의 경험형 문화로 전환되는 것이다. 특히 양림동의 근대 선교문화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사전 자문 단계에 진입하며 국제적 가치가 확인되고 있다. 이 자원을 중심으로 신앙, 역사, 문화, 교육, 치유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할 때, 광주·전남은 세계적인 순례지로 도약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적 전환의 가능성은 이미 현실에서 확인되고 있다. 최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BTS 무료 공연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K-컬처의 세계적 위상을 입증한 사건이었다. 이 공연은 100여 개국에 동시 중계되며 글로벌 문화 확산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고, 단 하루 공연으로 약 2천600억 원 이상의 경제 효과가 발생함으로써 분석된다. 또한 외국인 방문 증가, 유투브·관광 소비 확대, 호텔 만실 등 도시 전체가 하나의 문화경제 생태계로 작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공연이 '무료'였다는 사실이다. 개방된 공공 공간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구조는 문화가 어떻게 사

회를 통합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였다. 문화는 개방될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한다.

이 흐름을 광주·전남에 적용한다면 그 가능성은 더욱 크다. 양림동의 선교 유산, 학교와 병원, 민주와 인간의 기억, 무등산과 전남의 생태 자원은 하나의 순례 서사로 연결될 수 있다.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이 단순한 종교 유적을 넘어 인간을 변화시키는 길이었듯, 광주·전남 순례길 역시 '걷고, 배우고, 묵상하고, 치유되는 전인적 여정'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적 흐름은 실제로 시작되고 있다. 최근 광주동명교회에서 열린 아가페컬처 광주 창립기념 음악회는 '위대한 동행-광주전남, 세계의 빛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과 지역을 잇는 문화적 실천이다. 세계적인 바리톤 고성현 교수와 지역 예술인들이 함께 하는 이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공동체를 형성했다. 전석 무료 초청으로 진행된 이번 공연은 문화의 개방성이 곧 통합의 방식임을 보여줬다.

결국 광주와 전남의 통합은 행정적이지 아니라 문화에서 시작돼야 한다. 문화가 먼저 사람을 잇고, 그 연결이 제도를 완성한다. 글로벌 문화관광관광타운과 순례길, 그리고 '위대한 동행'의 실천은 그 길을 이미 열고 있다.

이제 선택은 분명하다. 행정이 문화를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문화가 행정을 이끌 것인가. 광주·전남의 미래는 문화가 먼저 길을 열 때 비로소 완성될 것이다.

취재수첩

구태를 벗지 못한 선거, 명성 회복은 공허한 구호다



정 해 선  
지역특집부 국장

옛 전국 6대 도시의 명성을 되찾자고 외치면서도 이번 선거에 임하는 일부 모습에서는 여전히 후진적인 정치 문화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발전과 도약을 말하지만, 정작 선거판에서는 지역을 나누고 사람을 가르는 낡은 방식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출생지와 연고를 들춰내며 '우리 편'과 '남의 편'을 가르는 행태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 하며, 지역의 미래를 논해야 할 선거가 과거의 구태에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

특히 선거철만 되면 등장하는 이른바 '선

거꾼'들의 과도한 네거티브 공세는 유권자들의 피로감을 넘어 정치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확인되지 않은 의혹 제기와 자극적인 언어는 일시적인 관심을 끌 수는 있어도, 결국 지역 사회를 분열시키는 상처만 남길 뿐이다. 상대를 깎아내리는 데 집중하는 선거는 결국 지역 발전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그리고 지역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중심이 돼야 함에도, 현실은 여전히 인신 공격과 흠집 내기가 판을 치고 있다.

물론 모든 선거에서 품격 높은 경쟁만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의 선은 지켜야 한다. 근거 없는 비방과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발언들은 분명히 지양돼야 할 구태다.

이 지역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지라 불

리기에 더욱 오랜 시간 민주주의를 지켜온 자부심에 걸맞은 성숙한 시민의식과 정치문화가 요구된다. 선거는 단순히 승패를 가르는 과정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선택의 장이기에 유권자 역시 단순한 구호나 감정적 호소에 흔들리기보다, 냉정하게 정책과 공약을 따져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과거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유권자를 존중하고 정책으로 경쟁하며, 품격을 지키는 선거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옛 명성을 되찾겠다는 구호도 설득력을 가질 것이다.

이번 선거가 지역정치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 구태를 반복하는 선거로는 미래를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두가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할 때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부회장 馬讚皓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1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650-2016
정치부 650-2030	사 진 부 650-2080	마케팅팀 650-2070	광 고국 650-2017
경제부 650-2050	사 설 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 V 본 부 650-2009	사 업 본 부 650-2007	업무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 무 국 650-2020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서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202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